

고린도후서7:2-16 책망에 대하여

책망은 하기도 어렵고 수용하기도 쉽지않습니다. 그럼에도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바울의 지혜를 빌려보겠습니다.

1.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책망(5)

책망의 목적이 책망 자체가 아니라 사랑이어야 합니다. 책망은 그 책망의 대상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상대에게 근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근심하게 되는 것은 그 책망과 권면의 목적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근심하셨습니까? 나를 위한 책망과 권면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이 근심은 상대로 하여금 변화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책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가끔 책망자체가 목적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들으라고 따끔하게 말했어! 당신 그러면 못쓴다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된다고! 하면서 책망에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책망은 상대가 근심하고 고민하게 만들어서 그의 삶이 변화 받게 하는 것입니다. 책망은 사랑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10)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합니다. 시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시인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 34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심령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7장 15절에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를 깨달으려고 애쓰는 자 곧 심령이 가난한 자, 생명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위로를 주신다.(13)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회복을 받음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입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말의 위로가 아닙니다. 언제나 구체적 인 위로입니다. '위로'라는 말은 헬라말로 '파라클레시스' 라고 하는데 '격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13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라고합니다.

디도의 기쁨이 더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말은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이해가 갑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과 내용을 다 아는데 바울이 이번에는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면 고린도교회로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가겠습니까? 안가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 바울을 설득할것입니다. 선생님 안됩니다. 선생님도 해결 못하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로 배척을 받았는데 내가 간들 그들이 저를 받아들일것습니까? 그런데 디도는 순종하고 들고 갑니다. 그때 에베소를 출발해서 고린도를 향해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려서 도보로 한참을 갑니다. 그 기간이 최소 몇주는 됩니다. 그가 가는 도중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아 내가 간다고 될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나를 배척하고 거짓 교사들이 나를 해하기라도 하면 어찌나? 그런데 디도가 고린도에 도착해서 바울의 편지를 전해주자 희안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디도를 바울사도를 대하듯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시고 13절을 한번 더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상황을 디도가 사도바울에게 큰 기쁨으로 생생하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디도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에게 위로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Joseph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